



'제10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이 18~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버워치 월드컵' 첫 조별 예선이 17~1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내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에서 열리는 등 인천에 e스포츠 열기가 뜨겁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OGN e스타디움에서 열린 '제9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 모습. 사진제공 | 한국e스포츠협회

## ‘게임의 도시’ 인천으로...아마 최강자들 모인다

18·19일 대통령배 KeG 결선 개최  
내일부터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도

프로게이머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 전국 최고수를 가려라.

이번 주 인천광역시 e스포츠 열기에 휩싸인다. 전국 아마추어 선수들이 펼치는 e스포츠 대항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대통령배 KeG) 결선이 열린다. '오버워치 월드컵'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도 조별 예선전을 치른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통령배 KeG' 전국 결선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린다. 대통령배 KeG는 2007년 시작된 전국단위 정식 아마추어 대회로 2009년 대통령배로 승격됐다.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가한다. 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중 12년 동안 매년 치러진 대회는 KeG가 유일하다.

올해는 '리그오브레전드'(LoL), '던전 앤 파이터', '클래시 로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시범종목으로는 '한빛 오



오버워치 월드컵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10일 서울 삼성동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디션', '배틀그라운드', 'PES 2018', '모두의마블'이 선정됐다. 5월부터 진행된 지역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각 종목별 전국 e스포츠 고수들이 격돌한다.

정식종목 우승 선수(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고, 준우승 팀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3위 팀 및 시범종목 우승팀엔 한국e스포츠협회장상이 수여된다. 종합 우승은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기관)에 돌아가며, 우승 트로피와 함께 대통령상의 영광이 주어진다. 대회기간 동안 모범을 보인 지자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총 상금은 4380만원이다.

이번 대회는 스포터비게임즈를 통해

중계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등의 협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또 '제1회 인천 보드게임 페스티벌'과 연계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e스포츠협회 관계자는 "대통령배 KeG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잇고, 지역 e스포츠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대회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오버워치 월드컵 3회 연속 우승 첫발

인기게임 '오버워치' 종목의 국가 대항전 '오버워치 월드컵'도 인천서 막을 올린다. 세계 최강 한국 대표팀이 참가하는 첫 조별 예선이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내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에서 치러진다.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 홍콩, 대만, 핀란드, 일본 대표팀이 격전을 치른다. 한국 대표팀은 17일 대만과 첫 경기를 가진다. 상위 두 팀은 11월 미국서 열리는 '블리즈컨 2018'의 오버워치 월드컵 8강전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무엇보다 지난 두 차례의 월드컵을 모두 석권한 한국 팀의 3년 연속 우승 여부에 세계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뉴욕 엑셀시어의 박종렬, 김해성, 김태홍, 홍연준, 방성현, 필라델피아 퓨전의 이재혁, LA 발리언트 출신 구관승으로 구성됐다. 한국 팀 선수들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블리자드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3연속 우승을 위한 선전을 다짐했다.

한편 인기 e스포츠 종목인 'LoL'도 인천을 달굴 예정이다. 12일 포스트 시즌을 시작한 '2018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서머 스플릿 결선이 9월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우승팀에는 우승 상금 1억원과 함께, 올 가을 한국서 열리는 '2018 LoL 월드 챔피언십'(월드컵)의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11월3일엔 롤드컵 결선전도 인천서 열릴 예정이다.

dionys@donga.com

## 고화질 영화도 5초면 다운 삼성, 5G 표준 통신칩 공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표준(5G NR 릴리즈-15) 멀티모드 통신 칩(사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엑시노스 모뎀 5100'을 탑재한 단말기의 OTA(Over The Air) 송수신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엑시노스 모뎀 5100은 하나의 칩으로 5G뿐 아니라 각 세대별 이동통신 규격까지 지원하는 멀티모드 방식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특히 5G 통신환경인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4G 제품보다 1.7배 빠른 최대 2Gbps의 데이터 통신속도를 지원하고 초고속주파 대역(밀리미터파)에서는 6Gbps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한다. 6Gbps는 풀HD 고화질 영화(3.7GB)를 5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다.

김명근 기자

## LG, 내년 美 스프린트에 5G폰 공급

LG전자는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스프린트에 내년 상반기 5G 스마트폰을 공급한다. 스프린트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LG전자로부터 공급받는 스마트폰이 북미 첫 5G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북미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5G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집 | 고정필 기자 ico@donga.com

# 식당용 전기솥밥기계 IH-솥밥대통령™

국내 최초 3면 입체가열! 미리 밥짓기 기능 탑재로 4분만에 손님상에

더 빠르다! 더 맛있다! 더 가볍다!  
4분완성 누룽지 압력 솥밥

가스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 누룽지 솥밥을 짓는 압소용 기기를 개발해 판매한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 하는 이들이 많았다. 밥이 잘 될까? 맛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제품과는 판매 방식이 좀 달랐다. 식당마다 시연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밥을 해서 먹어보게 했다. 시연을 지켜보고 밥을 먹어본 식당 대표들은 심중팔구 기기를 구입했다. 그렇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 전국 식당에 수천 대가 팔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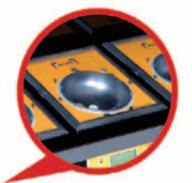
### ◆ 2018년형 신제품 출시

한국대통령밥기계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기술인 3면 입체가열방식을 채택해 밥이 더 맛있으면 서도 빠르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2018년형 솥밥대통령은 디자



솥 전체를 가열하는 인덕션은 "솥밥대통령" 뿐입니다!

〈국내 단독 최초〉  
IH 3D 입체 3면 가열



인을 더 세련되고 편리하게 개선했고 매장 편의적인 핵심 기술을 대거 추가했다. 우선 4분 데우기 기능과 별도로 자동보온 기능이 추가됐다. 밥이 다 되면 밥 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하는 기능이다.

단체 예약손님이나 거의 일정한 수의 손님들이 오는 식당에 유용한 기능이다. 예약한 손님들이 조금 늦더라도 갖 지은 것과 같은 품질로 손님상에 낼 수 있다. 또한 밥의 상태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진밥에서 꼬들꼬들한 밥에 이르기까지 손님 취향에 맞춰 밥을 지어



무료 출장 시연  
불러만 주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기계 불가지고 달려갑니다. 사장님 뵙로 지은 밥맛을 보시고 결정하세요!

낼 수 있다. 제품 타입도 기존 10구, 15구, 20구 등 3가지 모델에서 5구, 8구, 12구, 15구, 16구, 20구 등 매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매장이 원할 경우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해졌다.

### ◆ 고솥고솥 누룽지 솥밥, 4분 완성

솥밥대통령은 쉰 밥이 그 불라움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우선 밥맛이 집밥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장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이다. 한 톨 한 톨 밥 알이 살아있는 것은 불

문이고 마치 옛날 가마솥에 한 찰쌀밥처럼 윤기가 좌르르 흐른다.

솥밥대통령은 압력과 비압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겸용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최대 장점인 대형 음식점 업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데우기 기능은 그대로 계승됐다. 데우기 기능을 이용할 경우 4분이면 똑딱 솥밥을 완성할 수 있다.

### ◆ 전기 이용하는 첨단 솥밥기

솥밥대통령은 가스가 아닌 전기로 옛날 가마솥 밥맛을 완벽히 재현한 제품이다. 솥 외에는 열도 나지 않고 일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아 주방이 아닌 홀에 놓고 사용해도 될 만큼 깨끗한 제품이다.

### ◆ 1시간에 140인분 똑딱

이 제품은 원터치 전자솥 제품으로 불 조절이나 밥을 들이기 위해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썰만 썰어 안치고 버튼만 눌러주면 7분 만에 최대 20인분의 솥밥이 똑딱 완성된다. 따라서 1시간이면 140인분이 넘는

솥밥을 똑딱 완성할 수 있다.

### ◆ 기기값 전액 할부 가능

이 회사는 영세한 음식점들도 솥밥대통령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기값 전액에 대해 36개월 할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내구성도 좋아 잔고장이 거의 없으며 평생 무상 A/S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솥밥대통령 상담&시연 ☎ 1661-9565